

화성시, '어르신 바리스타 육성' 커피복합문화센터 개관

송고시간 | 2020-11-16 14:38

(화성=연합뉴스) 최해민 기자 = 어르신 바리스타 육성을 위한 커피복합문화센터가 16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근린공원(1호)에서 문을 열었다.



화성시 커피복합문화센터 개관
[화성시 제공. 재판매 및 DB금지]

봉담 근린공원 내 1천575㎡ 부지에 지하 1층, 지상 3층, 연면적 2천237㎡ 규모로 건립된 커피복합문화센터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, 바리스타 실기 작업장, 강의실, 대강당 등이 갖춰졌다.

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센터를 어르신 바리스타를 육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.

또 바리스타 실기 작업장 등 일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커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화성시 관계자는 "문화센터에서는 최고 수준의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화성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"이라고 말했다.

goals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0/11/16 14:38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